

 보건복지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 <h2 style="margin: 0; color: red;">8월 29일(목) 09:00 이후 보도</h2>	
		배 포 일	2019. 8. 28. / (총 13매)
과 장	최 봉 근	전 화	044-202-2320
담 당 자	유 동 욱		044-202-2321

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

- 전년 대비 14.2%(10조3055억 원) 증가, 정부 총지출 중 16.1% 차지 -
- 사회안전망 강화,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, 저출산·고령화 대응 중심 편성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(14.2%)한 것이며,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.

*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: ('17년) 57.7조 원 → ('18년) 63.2조 원(+5.5조 원) → ('19년) 72.5조 원(+9.3조 원) → ('20년 안) 82.8조 원(+10.3조 원)

○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.4%에서 2020년 16.1%로 꾸준히 증가하였다.

*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

· ('17년) 14.4% (57.7조 원/400.5조 원) → ('18년) 14.7% (63.2조 원/428.8조 원) → ('19년) 15.4% (72.5조 원/469.6조 원) → ('20년 안) 16.1% (82.8조 원/513.5조 원)

□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, 혁신 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.

-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①사회안전망 강화, ②건강 투자 및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, ③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.

<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방향 >

- ①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·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
- ② 국민건강증진투자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
- ③ 저출산·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

1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·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

□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

* 지난 5월 16일(목)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「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」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

○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다.

-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,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*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.

* 생계급여 : ('19) 3조7617억 원(추경예산+109억 원 포함) → ('20년 안) 4조3379억 원(5,762억 원, 15.3%)

*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

○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,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.

- 노인 일자리 13만 개(61→74만 개), 장애인 일자리 2,500개(2만→2만2500개)를 늘리고,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한다.

- 내년부터는 25세~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%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,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.

-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(만 15세~39세)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.

*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30만 원을 맞춰 지원하여 3년간 1,440만 원 형성 가능

□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

-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
 - 2020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(+9,000명, 8만 1000→9만 명), 시간 (월 평균 109→127시간)을 확대한다.
- 성인 주간활동(+1,500명, 2,500→4,000명), 청소년 방과후 돌봄(+3,000명, 4,000→7,000명)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.
-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(월 30만 원) 지급 대상(+2,900명, 4,920→7,820명)을 늘린다.
- 또한, 기존에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된 아동학대, 입양, 실종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한데 모아 '아동 중심'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.

□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
-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고, 돌보고,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계가 강화된다.
 -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,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(21.9월부터 단계적 개통).
 - *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: ('19) 409 → ('20년 안) 1,189억 원(780억 원, 190.7%)
 - 읍면동 단위 상담·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시범사업(4개 광역자치단체, 60억 원)을 실시한다.

- 이와 함께,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한다.
 -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, 요양,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.
 - 다양한 국·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 서비스원은 올해보다 7개가 늘어난 11개소가 운영된다.

2

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

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

-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.
 - 이를 통해,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.
- * 건강보험 정부지원 : ('19) 78,732 → ('20년 안) 89,627억원 (10,895억원, 13.8%)

□ 건강위험요인 예방·관리

- 만성질환 예방·관리체계 강화
 - 만성질환(고혈압·당뇨 등)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(모바일헬스케어) 참여 개소수를 확대(+30개소, 100→130개소)한다.
 -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(+20개소, 75→95개소)한다.
 -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, 정신건강 분야 투자 확대
 -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% 증액(738→1,026억 원) 편성하였다.
- *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: ('19) 729 → ('20년 안) 974억 원(+245억 원, 33.7%)
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: ('19) 9 → ('20년 안) 52억 원(+43억 원, 462.5%)

-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(+580명, 790→1,370명)하고,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(1개→6개 광역지방자치단체)하여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·재활·치료 역량을 강화한다.

-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*(34개)을 새로 만든다.

* 정신과적 응급·위기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·경찰·소방청 등이 협조하여 현장 출동 및 응급개입을 통해 안정과 상담을 유도, 입원연계 등 필요 조치

○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하여 고위험군(20~40대 만성간질환자 등) 대상 무료예방 접종(2회)을 새로 지원한다.

□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

○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·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*으로 육성한다.

* 지역 내에서 중증·응급 등 필수 의료 제공·연계, 퇴원환자·건강취약계층 중점관리 등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·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

○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(1개소)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하여,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.

□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(의료데이터, 의료기기, 제약)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대폭 강화

*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(R&D) 예산: ('19년) 4,669 → ('20년 안) 5,278억 원(+609억 원, 13.0%)

○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·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*을 구축하여, 질병극복·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.

*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(복지·과기·산업부 연계) : 150억 원(신규)

- 이와 함께, 의료데이터 중심병원(5개소, 93억 원)을 새롭게 지원·운영한다.

- 의료기기 연구개발(R&D)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(R&D-임상-인허가-제품화) 지원하고, 산업 경쟁력 강화*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.

*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(R&D) : 302억 원(신규)

*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: ('19) 47 → ('20년 안) 86억 원(+39억 원, 82.4%)

-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*을 구축하고, 제약·바이오 핵심 전문인력**을 양성한다.

*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: ('19) 25 → ('20년 안) 28억 원(+3억 원, 11.1%)

** 제약산업 육성지원 : ('19) 126 → ('20년 안) 153억 원(+27억 원, 22%)

3 저출산·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

□ 보육 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

- 보육지원체계 개편(2020년 3월)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.

-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(0~2세 : 420억 원, 3~5세 219억 원)하고 보조·연장보육교사를 배치(연장교사 +1만 2000명, 4만 명→5만 2000명 / 대체교사 +700명)한다.

-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(누적 167→717개소)하며,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.

□ 노인 돌봄체계 개편 및 소득기반 확충

-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'노인맞춤돌봄서비스*'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(+10만 명, 35→45만 명)한다.

- 이를 통해, 기존 사업별 일률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,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(4개영역 17개 서비스)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.

* 노인맞춤돌봄서비스 : ('19) 2,458 → ('20년 안) 3,728억 원 (1,270억 원, 51.7%)

- 또한,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%에서 소득하위 40%로 확대된다.

- < 붙임 >
1.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개요
 2. 정책 대상자별 주요 지원 내용
 3. 2020년도 예산안으로 달라지는 모습

- < 별첨 >
1.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사업
 2. 2020년도 보건복지부 국민체감 예산안 20선
 3.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(안) 인포그래픽

붙임 1

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개요

□ 2019년 8월 29일(목)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전년 대비 9.3% 증가한 513조 원 수준이며,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4.2% 증가한 82조8203억 원(정부 전체 총지출의 16.1%)

○ 복지부 총지출 증가(10.3조 원)는 정부 총지출 증가(43.9조 원)의 23.5%

< 2020년 정부 전체 · 복지분야 · 복지부 총지출 규모(안) >

(단위 : 조원, %)

구 분	'19년 본예산(A)	'20년(안)(B)	증감 (B-A)	%
○ 정부전체 총지출(a)	469.6	513.5	43.9	9.3
○ 보건·복지·고용분야 총지출(b)	161	181.6	20.6	12.8
○ 복지부 총지출(c)	72.5	82.8	10.3	14.2
▪ 복지부 비율(%)	c/a	15.4	16.1	23.5
	c/b	45.0	45.6	50

□ 2020년 복지부 총지출은 '19년(72조5148억 원) 대비 14.2%(약 10조3055억 원↑) 증가

○ 회계별로 예산은 '19년 대비 13.6%(6조1438억 원↑), 기금은 15.3%(4조1618억 원↑) 증가

○ 사회복지 분야는 '19년 대비 14.7%(8조9413억 원↑), 보건분야는 11.8%(1조3642억 원↑) 증가

< 2020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(안)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19년 본예산 ㉠	'20년안 ㉡	전년대비	
			증감 ㉢-㉠	%
총지출(A+B)	725,148	828,203	103,055	14.2
◇ 예산(A)	452,399	513,837	61,438	13.6
◇ 기금(B)	272,748	314,366	41,618	15.3
◇ 사회복지(A)	609,051	698,464	89,413	14.7
○ 기초생활보장	109,000	122,618	13,618	12.5
○ 취약계층지원	28,737	33,387	4,650	16.2
○ 공적연금	237,583	278,072	40,489	17.0
○ 아동·보육	81,264	84,441	3,177	3.9
○ 노인	139,776	165,887	26,111	18.7
○ 사회복지일반	12,690	14,059	1,369	10.8
◇ 보건(B)	116,097	129,739	13,642	11.8
○ 보건의료	25,909	27,783	1,874	7.2
○ 건강보험	90,187	101,956	11,769	13.0

붙임 2

정책 대상자별 주요 지원 내용

	과 제	2019년	2020년도 예산안	비 고
저소득층	생계급여	123만 명	132만 명 (+9만 명)	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공제 30%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
	의료급여	151만 명	151만 명	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	자활사업 (자활근로)	4만 8000명 (추경 1만 명 별도)	5만 8000명	자활급여 인상 일 5만 3400 → 5만 6100원 (시장진입형 기준)
	탈수급 (청년저축계좌)	신설	8천 명	본인적립금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 매칭지원
노인	노인일자리	61만 명 (추경 3만 명 별도)	74만 명 (+10만 명)	공익활동(7.3만 개), 사회서비스형(1.7만 개) 등 노인일자리 13만 개 확대
	노인맞춤 돌봄서비스	취약노인 35만 명	취약노인 45만 명 (+10만 명)	대상자 10만 명 확대 (6개 유사·분절적 서비스→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)
	치매안심센터	256개소	256개소	치매환자 84만 명 지원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공간·인력을 완비하고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식개소로 운영
	기초연금지급	단독가구 기준 (소득하위20%) 월 최대 30만 원, (소득하위20~70%) 월 최대 25만 원 (539만 명)	단독가구 기준 (소득하위40%) 월 최대 30만 원, (소득하위40~70%) '19년 * 물가상승률 (569만 명)	기초연금 인상 시기 변경 ('20.1월~)

	과 제	2019년	2020년도 예산안	비 고
장애인	장애인 활동지원	대상인원 8만 1000명 월평균 급여량 : 109시간	대상인원 9만 명 월평균 급여량 : 127시간	대상확대: +9,000명 급여량 증가: 18시간/월
	장애인연금	25.4만 원/30만 원 (36만 7000명)	25.8만 원/30만 원 (37만 8000명)	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
	발달장애인 지원	주간활동·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 5,500명 단가 12,960원/시간	대상자 11,000명 (+5,500명) 단가 13,350원/시간	주간활동·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단가인상 : +390원/시간
아동	보호종료아동	자립수당 (월 30만 원) (4,920명)	자립수당 7,820명 (+2,900명)	'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
	국공립 어린이집	4,152개소	4,702개소	국공립어린이집 확충 (+550개소)
	어린이집 보조·대체교사	보조교사 4만 명 대체교사 2,736명	보조·연장교사 5만 2000명 대체교사 3,436명	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일자리 확대 (연장교사 +1만 2000명, 대체교사 +700명)
	아동권리보장원	민간 8개 아동관련 중앙조직 분산·운영	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여 설립	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 지원
	아동수당 지급	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0만 원 (*19.9월부터 만 7세 미만)	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10만 원	'19.9월 아동수당 연령확대 (만 6세 미만 → 만 7세 미만)
	다함께 돌봄	맞벌이 가구 등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2,200명	맞벌이 가구 등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12,200명 (+1만 명)	최장 10시까지 운영 등 취약시간대 돌봄 지원

과 제		2019년	2020년도 예산안	비 고
보건 의료	인플루엔자 예방접종	3가백신 접종 지원 (1,375만 명)	4가백신 접종 지원 (1,412만 명)	예방효과가 더 넓은 4가백신 접종 지원 (+37만 명)
	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	-	A형간염 고위험군(20~40대) 예방접종 지원 (대상자 25만 명/ 접종자 7만 8천 명)	A형간염 고위험군 발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신규 지원 (대상자 +25만 명/ 접종자 +7만 8천 명)
	국가결핵예방	일부지역(전남,충남) 노인(118,180명) 이동결핵검진	전국 의료급여수급권자 (176,632명)·와상, 노인(87,872명) 노숙인·쪽방주민 (11,340명) 등 이동결핵검진 총 275,844명	-

붙임 3

2020년도 예산안으로 달라지는 모습

청년저축계좌 신설

- 근로능력수급자 탈수급 지원 : ('19) 781 → ('20년 안) 1,071억 원(+290억 원, 37.1%)

20세 청년인 박○○씨는 중위소득 50% 이하의 저소득층이다. 친구들은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지만 가정 형편상 엄두가 나지 않는다.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**모두 가족의 생활비로** 쓰고 있기 때문이다.

하지만 **내년부터는 청년저축계좌에** 가입할 수 있게 된다. 월 **10만원만** 저축하면 정부가 **30만원을 추가로 적립**하여 3년 뒤 **1,440만원**이라는 목돈이 생긴다. 이 돈으로 **학원도 다니고 학자금 대출도** 갚을 예정이다.

목돈마련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. 상담사가 되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. 청년저축계좌는 그런 **꿈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지원군**이 될 것이다.

보육지원체계 개편

- 보육교직원 인건비 : ('19) 1조1868 → ('20년 안) 1조3781억 원 (1,912억 원, 16.1%)

- 영유아보육료 지원* : ('19) 3조4053 → ('20년 안) 3조4056억 원 (3억 원)

* 보육지원체계 개편('20.3월)에 따른 연장 보육료 반영(0~2세 420억 원, 3~5세 219억 원)

만 2세 아이 아빠인 최○○씨. 퇴근 후 저녁 7시 경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면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다. 선생님이 나로 인해 장시간 근무하고 늦게 퇴근하시는 것만 같아 항상 부담이 되었다.

하지만 **내년 보육지원체계 개편**으로 늦게 하원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**오후 4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연장반 선생님이 새로 오신다**고 한다. 정규시간 근무에 지친 담임선생님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근하고, 늦게 남아있는 일부 아동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**새로운 전담 선생님**과 있게 된다.

이로 인해 **아이들에게는 보다 좋은 보육환경**이 만들어 지고, **선생님들은 적정근로를 하며, 부모는 마음 편히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게** 된다.

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및 응급개입팀 신설 등

-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: ('19) 729 → ('20년 안) 974억 원(245억 원, 33.7%)
-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: ('19) 9 → ('20년 안) 52억 원 (43억 원, 462.5%)

초기 **중증정신질환**을 앓고 있는 노○○씨는 **중위소득 50%의 저소득층**이다.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, 특히 **갑작스런 증상 발현 시 긴급한 지원**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도 있다. 또한 **치료비**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.

그러나 내년부터는 더 나은 서비스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. **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이 대폭 확충**되고, 정신응급·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·경찰·소방청 등이 협조하여 **신속하게 현장에 출동, 응급 개입**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된다.

또한 **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층 정신질환자**에 대한 **치료비**를 지원함으로써 **안정적으로 증상을 관리**하고 **일상을 유지**할 수 있게 된다. .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: ('19) 2,458 → ('20년 안) 3,728억 원 (1,270억 원, 51.7%)

박○○씨는 **82세 남성 어르신**이다. 최근 배우자와 사별하여 **혼자 사는 어르신**은 생활관리사가 집에 방문하여 **안전·안부확인**을 해주는 **노인돌봄 기본서비스**를 받고 있다.

청소,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서비스(노인돌봄종합서비스)도 필요하지만, **서비스 중복제공이 불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**이다.

그러나 **내년부터는** 기존 노인돌봄기본·종합서비스 등이 **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**되면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**어르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안전·안부확인, 가사지원서비스**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.